

“우린 닮은 꼴” ‘父女의원’ 탄생

광주 동구 조수웅 전의원 딸 조승민

광주시 최초로 아버지에 이어 딸이 지방의원에 당선돼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광주시 동구의회의원 동구가선거구에 당선된 새정치민주연합 조승민(여·38) 당선자와 아버지 조수웅(75) 전 광주시의원.

시의원과 구의원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조씨 부녀(父女)는 총장동·동명동·계림1동·계림2동·산수1동·산수2동 등 같은 선거구에서 출마해 당선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조 당선자는 이번 6·4 지방선거에 첫 출마, 가선거구에서 당당히 당선됐으며 아버지 조씨는 민선1기(1991년 7월~1995년 6월)·2기(1995년 7월~1998년 6월) 시의원을 역임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할 말은 하는, 소신 있는 정치인이 되겠다”며 “젊은 여성 정치인”이란 신선한 구호를 내걸어 당선된 딸은 동구지역 한 사회단체 직원이었다.

그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광역단체장 후보의 연설원으로 일하게 되면서 정계에 입문하게 됐다. 그는 “당시 (정치에 대한)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며 “아버지께서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선배 같은 정치인이 되어만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조언을 해주셨다”고 말했다.



아버지 조수웅씨(오른쪽)와 딸 조승민 당선자.

그는 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과감히 자신의 진로를 변경한 뒤 지방선거 출마를 결심했다.

선거운동 기간 뛰어난 언변으로 인기몰이를 한 그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청·장년 유권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캠프 총책임을 맡은 아버지와 문자메시지 발송 문제를 놓고 옥신각신 할 정도로 할 말은 하는 소신과 이기도 하다.

재선 시의원으로 부의장까지 지낸 아버지 조

수웅씨는 당시 시의회에서 ‘바른 말’ 잘 하기로 정평이 난 인물. 특히 남들이 서로 눈치를 살피며 말하기를 꺼려할 때 “아니오”라고 주장을 펼 수 있는 소신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었다는 게 주변의 평가다.

조 당선자는 “나의 정치적 스승은 아버지다. 아버지의 소신대로 도덕성을 갖춘 구의원이 됨은 물론 주민을 섬기는 구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영광 강필구 ‘기초의원 7선’ 대기록

광주·전남 다선 기초의원들

기초의원 선거에선 전남에서 전국 최다선 의원이 탄생하는 등 이색 다선 의원이 눈길을 끌었다.

영광 가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강필구 후보가 광주와 전남지역 지방의회에서 처음으로 7선 의원의 영예를 안았다. 전국적으로는 3명이 7선에 도전해 강 씨 등 2명이 성공했다.

강 씨는 지방의회가 개원한 1991년 의사당 문턱을 밟은 뒤 내리 7번 당선된 셈이다.

모두 9명이 출마한 가운데 4명을 뽑는 가선거구에서 강 씨는 16.87%의 득표율로 당당히 1위로 당선됐다.

강 씨는 최다선이라는 화려한 경력 이면에는 과거의 감추고 싶은 이력이 적지 않지만, 평소 갈고닦은 지역구 관리 등에 힘입어 무난히 배지를 달았다.

광주에선 기초의원 당선자 중 5선이 2명이나 됐다.

남구 다선거구(방림1.2동·봉선1동)에서 당선된 이창호(61) 당선자는 민선 1~4대에 기초의원을 지낸 뒤, 7대에 다시 구의원에 당선됐다.

이 당선자는 기초의원으로서 드물게 행정학 박사 출신으로 11년 동안 호남대에서 복지행정을 강의하는 등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이를



강필구 당선자

이창호 당선자

이병석 당선자

광주 이창호·이병석 당선자도 5선 기록

을 날리고 있다.

이창호 당선자는 “아무리 사회안 전망이 잘 갖춰져도 행정망이 가동되지 않으면 극빈층의 복지는 차단될 수밖에 없다”면서 “복지 전도사로서 더 낮게 더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석 북구의원(58)은 아선거구(건국·양산동)에서 민선 6대에 이어 이번에 재선에 성공했다. 민선 2~4대, 6대를 포함해 다섯번째 당선이다.

그의 의정활동은 언제나 주민복지와 소통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 저소득층이나 조손 가정 등 어려운

가정들이 당연히 챙겨야 할 자신들의 경제적 복지를 놓치지 않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제 주민들의 경제적 복지를 대신 챙겨주는 신뢰 행정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문화 공간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병석 당선자는 “주민들과 하루하루 보내는 생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행복”이라면서 “믿고 지지해주신 주민들과 함께하는 풀뿌리 의원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 /영광=조익성기자 ischo@

선거구 代이은 ‘父子의원’ 눈길

광주 북구 이근재 전의원 아들 이부일

광주에서 아버지의 대(代)를 이어 아들이 구의원에 당선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시 북구의회의원 북구다선거구에 출마표를 던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부일(39)씨는 투표자 4만3276명 중 1만 1899표(28.36%)를 얻어 1위로 기초의원 뺨치를 탈게 됐다.

이 당선자는 전 북구의원 이근재(70)씨의 아들이다. 이씨는 1·2·3대 북구의회의원을 지낸 인물. 이 당선자는 아버지가 불출마를 선언한 지난 2006년(민선 4기)부터 출마해 삼수 끝에 구의원에 입성하게 됐다.

이 부자(父子)는 북구의회의원 출신이라는 점과 용봉·오지·매곡·임동 등 같은 선거구에서 출마해 당선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 지역구에 사는 어르신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권유해 선거에 나서게 된 점도 아버지와 닮은 꼴이다.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구호를 내걸어 당선된 이 당선자는 광주지역 한 법무법인 소속 사무장이었다. 정치와 무관한 일을 해오던 그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이유는 아버지의 영향 때문.

이 당선자는 “중학교 때 아버지가 초선 구의



아버지 이근재씨(왼쪽)와 아들 이부일 당선자.

원이었다. 이후 12년간 정치인으로 살았던 아버지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며 “훌륭한 정치인이 되려면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자신을 낮추는 섬김 자세가 필요하다”는 아버지의 뜻도 그대로 물려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복지 또는

문화관련 상임위에서 일하고 싶다. (아버지) 재임 당시, 벽돌제조업을 하다보니 집에 중장비가 많았다. 동네에 홍수가 나면 직접 중장비를 몰고 가 마을 청소를 도맡아 하셨다”며 “저 역시 누가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새누리 깃발 들고 광주서 투표로 당선

박삼용 광산구의원

새누리당 박삼용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로는 처음으로 광주에서 기초의원에 당선됐다.

새누리당은 물론 무소속 후보들에게도 ‘무담’으로 여겨지는 광주에서 이례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새누리당 소속으로 광주 광산구가선거구에 출마한 박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 정병재 후보에 이어 2등으로 당선 영광을 안았다.

“공천 = 당선”인 새정치연합 후보는 제쳐두고 통합진보당과 무소속 후보를 누르고 이뤄낸 성과라는 평가가 당 내부에서 나온다.

박 당선인은 2002년부터 무소속



박삼용 당선자

남 화합’을 외치며 새누리당에 입당했다.

새누리당 후보로 4선에 성공한 박 당선자는 주민들의 민원 해결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발로 뛰는 의원’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민원 해결을 위해 해당 기관과 담당자를 찾아 성과를 이뤄낸 덕분에 ‘불도저’라는 별명도 얻게됐다.

1995년 지방선거 실시 이후 광주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당선된 사례는 전무하다. 무소속 후보가 구청장 2차례, 기초의원 4차례 당선됐을 뿐이었다.

/최승렬기자 srcho@

으로 3선 광산구의원을 지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고 이후 민주당에 입당했다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영·호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변화와 혁신으로 영암의 밝은 미래!!

6.4 지방선거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영암군수



전동평(田東平) · 새정치민주연합

군의원(가선거구)



박찬종(朴燦鍾) · 새정치민주연합



이하남(李夏男) · 새정치민주연합



박명배(朴泳培) · 무소속

군의원(나선거구)



김철호(金澈鎬) · 새정치민주연합



강찬원(姜贊元) · 새정치민주연합

도의원



우승희(禹承熙) · 새정치민주연합



김연일(金然日) · 새정치민주연합

군의원(다선거구)



조정기(曹正基) ·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수(朴永守) · 새정치민주연합

군의원(비례대표)



고화자(高花子) · 새정치민주연합



영암 F1 경기장

월출산

영암군청, 영암군의회 직원 일동 · 영암군 사회단체 협의회원 일동 · 영암군 여성단체 협의회원 일동 · 영암군 농업인단체 연합회원 일동